『詩經』에 나타난 平民의 政治意識

박순철*

-
1. 들어가는 말
 2. 『시경』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특징
 - 1) 선진 시대의 해석
 - 2) 三家詩와 毛詩의 해석
 3. 통치의 二重構造
 - 1) 통치자의 정당성
 - 2) 피통치자의 순종
 4. 통치에 대한 비판
 - 1) 군주의 혼용
 - 2) 통치자의 향락
 - 3) 가혹한 착취
 - 4) 行役과 征伐로 인한 家族崩壞
 - 5) 의식주에 대한 불안
 - 6) 난국과 망국의 한
 5. 통치에 대한 대응
 - 1) 소극적 대응
 - 2) 적극적 대응
 6. 맺는 말
-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E-mail: unshan@hanmail.net

■ 국문요약

『詩經』은 중국 최초의 詩歌總輯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15國風은 민간의 가요를 채집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평민들의 목소리가 진솔하게 담겨있어 백성들의 정치 사회적 관념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시편들을 통하여 평민들의 통치자에 대한 정치의식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민들은 통치자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비판을 하며 대응을 하였다.

평민의 정치적 비판은 주로 군주의 혼용, 통치자의 향락, 가혹한 착취, 정벌과 행역으로 인한 가족붕괴, 의식주에 대한 불안, 망국의 한 등에 대한 것이다. 군주의 혼용, 통치자의 향락, 망국의 한은 통치자와 그 통치행위에 대한 공적인 비판이고, 가혹한 착취, 정벌과 행역으로 인한 가족붕괴, 의식주에 대한 불안은 통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사적인 비판이다.

피통치자의 정치적 대응은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대응은 하늘을 믿으며 타고난 운명과 신분에 순응하여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고 나쁜 통치자라도 참고 의지하여 삶을 유지하는 의타적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와 현실에 안주하여 현실을 타파할 의지가 부족함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는 周나라처럼 宗法制와 封建制에 기초한 신분계급사회에서 계층상 하위에 속한 평민은 정치의 굴레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할 만한 적극적 대응이 있었으니 원망을 넘어선 脫出과 隱居이다. 이러한 대응은 정치와 사회적 한계 속에서 평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이후 저항-봉기-혁명의 정치적 도전을 감행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詩經, 15國風, 평민, 정치의식, 대응, 탈출, 은거

1. 들어가는 말

『詩經』은 중국 최초의 시가총집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15국풍은 민간의 가요를 채집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평민들의 목소리가 진솔하게 담겨있어 백성들의 정치 사회적 관념과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시경』의 시에 대하여 역대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였는데, 이른 시기에는 공자를 포함한 제자백가가 『시경』에 대해 언급하였고, 『시경』 전편에 대하여 해석을 붙인 것으로는 三家詩와 毛詩가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시경』에 대하여 ‘思無邪’와 ‘興觀群怨’을 말하여 『시경』의 특색과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중에서 ‘觀’은 『시경』을 통하여 당시의 정치사회 현상과 민심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가시의 해석적 특색은 『시경』을 정치적 간서로 풀이한 것이고, 모시의 해석적 특색은 『시경』 시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에 부회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특히 「모시서」를 통하여 『시경』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시의 風化와 諷刺의 효능을 언급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경』 해석의 다양한 관점 중에서 정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피통치자들, 특히 평민들의 정치의식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정치와 관련한 내용은 風·雅·頌 중에서 ‘風’과 ‘雅’에 주로 반영되어 있는데, 風에서는 주로 평민들이 통치자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엿볼 수 있고, ‘雅’에서는 군주에 대한 관료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시경』에 나타난 정치 관련 내용 연구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강조된 시교 방면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평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치의식과 유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경』에 반영된 평민의 정치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그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평민의 정치의식 수준과 그에 따른 대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정치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民本’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본주의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통치력의 유지와 영향력을 위하여 지배계층에서 강조된 것으로 평민 스스로에 의하여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다. 즉 평민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고대 평민들의 통치자에 대한 시각과 그들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시경』을 통하여 정치의식을 탐구하고 그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역사 변화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주체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규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2. 『시경』의 정치적 해석과 특징

1) 선진시대의 해석

『시경』은 『논어』에서 ‘詩三百’으로만 일컬어졌다. 공자 이후 전국시대 말년에 이르러 서책에 經자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경』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다가 남송 초에 廖剛이 처음으로 『詩經講義』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경』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 『시경』에 대하여 공자는 일찍이 『논어』「위정」에서 “『시경』 3백 편의 뜻을 한 마디의 말로 개괄하면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여 『시경』 내용의 전체적인 특색을 한마디로 ‘思無邪’라고 개괄하였다. 공자가 『시경』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에서 정치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論語』「陽貨」에서 “시로 흥을 일으킬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모이게

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고 한 것과 『論語』「子路」에서 “『시경』 3백 편을 외우고도 정치를 맡겼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비록 많이 외운다 한들 어디에 쓰겠는가.”라고 한 것이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興觀群怨’으로 줄여 말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觀’은 시를 통하여 당시의 정치 사회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시경』의 시를 정치외교 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시를 ‘斷章取義’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장취의’는 『시경』의 시구 중에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같은 시구를 인용하여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 『春秋左氏傳』에 많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2) 三家詩와 毛詩의 해석

『시경』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漢代에 이르러 삼가시와 모시가 복원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삼가시는 韓詩, 齊詩, 魯詩를 말한다. 韓詩는 주로 정치적으로 해석되었고, 魯詩는 平實하게 해석되었으며, 齊詩는 음양오행설이 첨가되어 괴탄스럽게 해석되었다. 삼가시 해석의 공통적인 특색은 305편의 시를 정치적 간서로 해석한 것이다. 삼가시는 후대에 전해지지 못하고 다만 『한시외전』만 일부 남아 있다.

모시는 시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에 부회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였다. 모시는 毛亨과 毛萇에 의하여 『毛詩詁訓傳』이 지어졌고 이후 貫長卿과 解延年 등으로 전수되어 한나라 鄭玄의 『毛詩鄭箋』, 당나라 孔穎達의 『毛詩正義』, 남송 주희의 『詩集傳』 등으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시경』은 바로 『모시고훈전』이 전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모시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향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시경학사, 시경연구사, 시경사전 등과 관련한 저서들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참조하면, 『시경』에 대한 해석은 親毛詩, 廢毛詩, 脫毛詩의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친모시는 모시의 大序와 小序의 관점을 따라 시를 해석하는 것이고, 폐모시는 모시의 대서와 소서를 폐기하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시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모시의 해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탈모시는 모시의 해석을 완전히 벗어나 시에 나아가 시를 해석 [就詩論詩] 하는 것으로 시를 새롭게 해석한 성과가 적지 않았다.

『시경』의 연구방법은 訓詁的, 義理的, 考證學的 방법이 있었고 근대에 이르러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훈고적 방법은 현대의 『시경』 연구방법으로 모시서의 설을 따르면서 자구의 뜻과 음에 대하여 주석을 붙이는 것이다. 의리적 해석은 모시의 대서와 소서의 설을 비판하며 시의 내용을 의리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인데 송나라 歐陽修 이후, 鄭樵가 『詩辨妄』에서 하였고 朱熹가 『詩序辨說』을 지어 모시설을 타파하고 시의 내용을 의리적으로 해석하였다. 주희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詩集傳』을 지어 시를 새롭게 해석하는데 주력하였다. 嚴粲 또한 『詩緝』을 지었는데 모시만을 따르지 않고 여러 학자의 설을 참조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고증학적 연구방법은 청대에 현대의 훈고학적 해석을 존승하여 시의 내용과 자구의 해석에서 고증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陳啓源의 『毛詩稽古編』, 胡承珙의 『毛詩後傳』, 陳奐의 『毛詩傳疏』 등은 고증학적 방법으로 시를 해석하여 송대의 의리적 해석의 주관성을 수정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룬 대표적 저서이고, 馬瑞辰의 『毛詩傳箋通釋』은 『모전』과 『정전』을 보충하여 해설한 책으로 고증이 해박하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과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시경』에 대해 연구하였고 각각의 해석과 연구방법에 따라 적잖은 성과를 거두어 『시경』의 진면목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에 대한 해석은 시를 지은 작자와 그 시를 해석하는 독자라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작자와 독자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시경』은 오랜 세월 동안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필요, 그리고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느 관점과 해석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선 그 관점과 해석이 있게 된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그 의의를 연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서 정치적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당시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규명할 것이다. 『시경』 시의 정치적 해석은 삼가시와 모시에서 시작되었는데 삼가시는 현재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는 만큼 毛詩의 大小序와 朱熹의 주해를 중심으로 그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시는 305편의 첫머리에 大序가 있고 각 시의 앞에는 小序가 있다. 모시의 대서는 子夏가 지었다고 하고, 모시의 소서는 子夏와 毛公 또는 子夏와 衛宏이 지었다는 등 여러 설이 있다. 모시의 정치적 해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정자는 風으로써 아랫사람을 풍화하고 아래에서는 風으로써 위정자를 풍자하는데, 문장을 위주로 하여 은근히 간하여 말한 자는 죄를 받지 않고 듣는 자는 충분히 경계로 삼을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은 風化와 風刺의 정치적 효능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風’자에 대하여 모시 大序에서는 “風의 뜻은 움직이고 가르치는 것

이니 움직여서 감동시키고 가르쳐 교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풍자의 글자 의미와 함께 풍시(15국풍)의 정치적 교화를 말한 것으로 이는 한마디로 ‘詩敎說’이라고 할 수 있다.

“情은 聲에서 나타나니, 聲이 文을 이룬 것을 音이라 한다. 治世의 음악은 편안하고 즐거우니 그 정사가 和하며, 亂世의 음악을 원망하고 노여워하니 그 정사가 乖리되며, 亡國의 음악은 애처롭고 그리워하니 그 백성이 公곤하다. 그러므로 득실을 바르게 하고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시보다 더한 것이 없다.”

이 인용문은 정과 음악의 관계, 음악에 반영되는 민심, 천하의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의 정치적 효능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음악과 시에는 감정이 이입되어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감정은 禮에서 그쳐서 예의에 맞는 절제된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제된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여 정치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모시서의 정치적 해석은 모시의 전통을 계승한 주희의 『시집전』 서문에도 보인다.

“諸侯가 이것을 채집하여 天子에게 바치면, 天子가 받아서 樂官에게 진열하게 하고, 이에 그 풍속이 숭상하는 것의 좋고 나쁨을 상고하여 그 정치의 득실을 알았다.”

위의 인용문은 시를 采詩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풍속의 미악과 정치의 득실을 파악하여 민심의 동향을 알고자 한 것이다.

『시경』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 『詩經講義』를 지은 丁若鏞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해석의 특징은 美刺說로 요약할 수 있다.

“國風의 여러 시는 또한 오직 한번 군주를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혹은 미화하고 찬양하여 그 선한 마음을 감발시키고, 혹은 풍자하고 경계하여 그 나태한 뜻을 징계한다. 군주의 마음이 바로잡아지면 백관이 저절로 바르게 되고 백관이 바로잡아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정약용은 『시경』의 모든 시는 군주에 대한 찬미와 풍자를 위하여 지은 것으로 이를 통하여 정치가 바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통치의 이중구조

『시경』은 風·雅·頌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풍은 15국풍으로 민간가요인데 애정 등 다양한 내용의 시 총 160편이 수록되어 있다. 雅는 大雅와 小雅로 구분되는데 소아는 74수, 대아는 31수로 총 105편이다. 그 내용은 조정에서 군신 간의 연회와 조회에서 읊은 것으로 조정, 사회, 전쟁, 역사에 관한 것이다. 다만 소아에는 국풍과 비슷한 연애와 결혼에 관한 내용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頌은 周頌 31수, 魯頌 4수, 商頌 5수로 총 40편이다. 그 내용은 주로 종묘와 사당에서 조상에 대한 頌讚과 求服을 읊은 내용이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서는 15국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15국풍은 周南 11편, 召南 14편, 邶風 19편, 鄘風 10편, 衛風 10편, 王風 10편, 鄭風 21편, 齊風 11편, 魏風 7편, 唐風 12편, 秦風 10편, 陳風 10편, 檜風 4편, 曹風 4편, 豳風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周南과 召南은 군주의 덕을 찬미한 시가 많고 邶풍과 鄘풍은 군주와 정치현황에 대하여 비평한 시가 많다. 따라서 이들 시편을 분석하면 바람직한 군주의 상과 그렇지 않은 군주의 상을 대별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衛風과 鄭風에는 연애와 애정에 관련된 시가 많고 秦風에는 尙武精

神과 관련한 시가 많다.

1) 통치자의 정당성

『시경』의 시가 창작되어 유행했던 周나라는 殷나라를 정벌하고 세운 나라이다. 주나라를 세운 文王과 武王은 은나라의 신하였기 때문에 은나라 군주를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바로 天命說이다. 천명설은 덕이 있는 사람이 천명을 받아 군주가 되어 천하를 다스린다는 설이다. 즉 人德과 天命을 서로 관련지어 통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시경』의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皇矣」, 「文王」, 「大明」, 「蕩」과 같은 시편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황의」 제1장의 “위대하신 상제가 아래로 굽어보심이 밝다 [皇矣上帝, 臨下有赫]”, 제2장의 “위대한 상제가 명덕의 군주를 옮긴지라 [帝遷明德]”, 제4장의 “그 덕이 능히 밝아서 능히 시비를 밝히며 능히 선악을 분류하였네 [其德克明, 克明克類]”와 「문왕」 제5장의 “주나라에 복종하니 천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네 [侯服于周, 天命靡常]”와 「대명」 제1장의 “밝고 밝은 덕이 아래에 있으면 빛나고 빛나는 명이 위에 있도다 [明明在下, 赫赫在上]”와 「탕」 제8장의 “은나라의 거울이 멀리 있지 아니하여 하후의 세대에 있느니라 [殷鑒不遠 在夏后之世]” 등의 시구를 들 수 있다.

네 편의 시 중 「황의」, 「문왕」, 「대명」에서는 천명은 일정하지 않아서 明德을 갖춘 사람에게 옮겨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될 수 있었다는 뜻을 발명하였고, 「탕」에서는 군주가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의 버림을 받아 천명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라

의 마지막 군주인 桀王이 나쁜 짓을 하여 천명이 하나라를 떠나 은나라로 왔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즉 천명은 항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인덕이 있는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大學』 經1章의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침에 있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라는 대명제로 선언되어 유가의 정치와 학문의 최종 목표로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천하를 다스릴 사람은 명덕을 닦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 만들고 지고지선한 선에 이른 뒤에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극치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명덕을 밝힌다’라는 뜻을 「황의」의 “克明과 克類”에 대한 주희의 “克明은 능히 시비를 살피는 것이고, 克類는 능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克明能察是非也, 克類能分善惡也.]”라는 주석을 참조하여 풀이하면, 명덕은 시비를 판단하는 밝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시경』에는 德과 德音, 明德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특별히 명덕을 가진 사람이 천명을 받아 천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은나라 말기에 紂王이 황음 무도하여 시비를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정치가 극도로 혼란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다름 아닌 시비를 판단하여 일을 제대로 조치하는 것인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이 명을 내려 천자가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 바로 천명설이다.

다음으로 천명을 받아 군주가 된 자는 군주로서의 통치력 구현을 위하여 실천덕목이 필요하였는데 부모형제에 대한 효제와 친인척 간의 화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덕목은 통치논리의 입장에서 통치력 확보를 위하여 군주가 우선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고 이를 천하로 확대하여 정치적 안정과 변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치논리는 바로

유가에서 강조하는 수신, 제가, 치국, ping천하의 정치논리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문왕과 무왕 그리고 성왕 등은 이러한 덕목을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치고 순화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효를 강조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효를 군주와 신하의 충의 관계로 전화하여 효를 통하여 충을 배양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법제와 봉건제를 기초로 하는 신분제도를 만들어 실행하고 禮를 실천하여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예를 따르는 의식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패풍 「相鼠」의 “사람으로서 예의가 없는 이는 어찌 빨리 죽지 않는가 [人而無禮, 胡不遄死]”라는 시구에서 그 편린을 볼 수 있다.

2) 피통치자의 순종

주나라는 종법제도와 봉건제를 기초로 한 국가로 엄격한 신분계층이 존재하였다. 그 신분계층은 天子(王)-卿(諸侯)-大夫-士-平民-奴隸였다. 이 중에서 ‘사’계급까지는 지배계층이고 평민과 노예는 피지배계층이었다. 따라서 지배계층은 피지배계층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배논리가 필요하였고 피지배계층은 그러한 계층구조 속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였다. 즉 피지배계층은 거대하고 엄격한 정치와 사회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계급구조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여 타파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순종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종의 논리는 『시경』 시의 여러 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세 부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타고난 운명과 신분에 순응하여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 시로는 「北門」이 있다. 둘째는 나쁜 통치

자라도 참고 의지하여 삶을 유지하는 의타적 자세이다. 그 대표적 시로는 「汝墳」, 「斯干」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현실에 안주하여 현실을 타파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그 대표적 시로는 「下泉」이 있다.

이러한 순종의 논리 속에서도 피지배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는 그동안 ‘풍자시’라는 이름으로 얘기되었다. 이러한 풍자시를 통하여 피지배계층의 정치의식을 엿볼 수 있고 그 대응 방식을 알 수 있다. 피지배계층의 정치의식이 순종-풍자-저항-탈출-봉기-도전-혁명-건국의 단계를 밟는다고 가정할 때, 『시경』 시에서는 탈출단계까지만 보이고 정권에 대한 도전이나 혁명정신 같은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시의 피지배계층은 대부분 정치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려는 순종의 논리에 젖어있었고 가끔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데에 그쳤다. 정권에 대한 도전의식은 사상적으로는 맹자의 혁명설에서 싹트고 실질적 정권도전 행위는 지배계층이었던 諸侯에 의해 먼저 나타나 전국시대에 빈발하여 五霸가 있는 다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지배계층인 하급계층에서도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秦나라 말기에 陳勝과 吳廣이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劉邦이 평민의 신분으로 봉기하여 漢나라를 세움으로써 처음으로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방의 건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유방이 처음으로 평민 출신으로서 최고 통치자인 황제가 됨으로써 그동안의 관례를 깨뜨렸고 더 나아가 평민들의 정치적 행동이 소극적 저항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실천으로 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추이를 고려하여 평민의 정치의식을 『시경』에서 살펴서 평민의 정치에 대한 의식, 참여, 역할을 규명하고 일반 백성들의 정치의식의 기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될 때 평민(노동자와 농민)을 주체로 하여 나라를 세운 사상적 배경을 역사적 차원에서

그 始源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4. 통치에 대한 비판

사람은 정치적 굴레를 벗어나 살 수 없다. 사람이 모이면 집단을 이루어 사회가 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통치가 필요하여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치제도 아래 통치가 행해지면 자연스럽게 상하구도가 생겨 통치자와 피통치자로 양분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하구조에는 이중적 구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군주와 신하, 신하와 평민이라는 이중적 구조이다. 이 중에서 신하는 피통치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통치자로서의 신하가 군주에 대한 비판과 평민의 통치자에 대한 비판을 논하여 피통치자의 정치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중점은 평민에 있다.

詩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는데 그 연구들 간에는 견해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통하여 시를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견해는 여전히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친편일률적으로 그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견해들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주로 모시의 주석과 주희의 주해를 참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목적이 『시경』에 나타난 정치의식을 밝히는 것인데, 모시만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고, 시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정치의 식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1) 군주의 혼용

『시경』에는 군주를 비판한 시가 적지 않다. 그 내용은 크게 군주의 失禮와 暴政으로 나눌 수 있다. 실례는 군주의 인격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예의 없는 행위와 비도덕적 애정행위 [姦淫] 를 뜻하고, 폭정은 통치자의 정치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小人에 대한 총애와 讒訴, 무모한 用兵, 포학으로 인하여 생긴 혼란한 政局과 亡國을 뜻한다.

예의 없음을 비판한 대표적 시는 「相鼠」이다. 비도덕적 애정행위를 비판한 대표적 시는 「新臺」, 「牆有茨」, 「二子乘舟」, 「株林」, 「載驅」인데 「주림」은 陳나라 靈公이 夏姬와 간음 한 것을 비판한 시이고, 「재구」는 魯나라 桓公 부인인 文姜이 친오빠인 齊나라 襄公과 밀회한 것을 비판한 시이다. 폭정을 비판한 대표적인 시는 風詩 중에서는 패풍의 「擊鼓」, 「北門」이다. 「격고」는 군주의 무모한 用兵을 비판한 시이고 「북문」은 신하가 군주의 소인에 대한 총애로 인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정국을 비판한 시이다. 「權輿」는 버림받은 신하의 호소연이고, 「候人」은 군주가 군자를 멀리하고 소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비판한 시이다.

雅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대표적 시로는 「小旻」, 「巷伯」, 「巧言」, 「十月之交」, 「菀柳」, 「白華」 등을 들 수 있다. 「소민」은 군주가 소인의 나쁜 계책을 따라 통치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짐을 비판한 시이고, 「항백」과 「교언」은 모두 참소를 당한 신하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한 시이다. 이 중에서 「십월지교」와 「울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彼月而微 저 달은 이지러질 수 있거니와
 此日而微 이 해의 이지러짐이여
 今此下民 이제 이 아래 백성이
 亦孔之哀 또한 몹시 애처롭도다
 「십월지교」, 제7장

이 시에 대하여 모시서는 “「십월지교」는 대부가 유왕을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여 하늘에서 일식현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읊었다. 일식은 왕의 잘못된 정치를 상징한다.

有苑者柳 무성한 버드나무에
 不尙息焉 어찌 쉬고 싶지 않겠는가
 上帝甚蹈 상제가 매우 위엄스러우시니
 無自暱焉 스스로 가까이 하지 말라
 俾予靖之 나로 하여금 왕실을 안정시키게 하나
 後予極焉 뒤에는 나에게 극도로 요구하리라
 「율류」, 제1장

이 시에 대하여 「모시서」에서는 “「苑柳」는 幽王을 풍자한 시이다. 포학하고 사나워 친한 이가 없고 형벌이 도리에 맞지 않아 제후들이 모두 조회하려 하지 않으니, 王者를 조회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무성한 버드나무 그들은 왕의 은택을 상징하는데 지금은 왕에게 은택을 받기는커녕 왕의 사나움으로 인하여 무리한 요구를 심각하게 받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 밖에도 雅에서는 특정인물이 통치자를 비판한 시로 凡伯의 「板」, 「瞻仰」, 「召旻」과 召穆公의 「民勞」가 있는데 이 시들은 모두 군주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혼란한 정치에 대하여 비판한 시이다. 그런데 『시경』에

는 통치자와 통치행위를 비판한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미한 시도 있다. 그 대표적인 시로는 「烝民」과 「韓奕」 등이 있다. 그러므로 『시경』에는 통치자와 그 통치에 대한 비판과 찬미가 공존하는데 이는 동전의 앞과 뒷면 같은 양면적 관계이다. 즉 통치자의 통치에 대한 비판의 뒷면이 바로 피통치자가 통치자에게 바라는 이상적 정치이기 때문이다.

2) 통치자의 향락

삶의 여유가 생기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런 욕구라고 할 수 있고 지나치지 않은 즐거움의 추구는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처럼 지나친 것은 폐단을 부르기 마련인데 특히 향락이 지나치게 되면 작게는 개인과 집안이 망하고 크게는 나라가 망함에 이르게 된다. 『시경』에도 지나친 향락의 추구를 비판한 시가 있는데 「簡兮」, 「蟋蟀」, 「宛丘」 등이 대표적인 시이다. 「간혜」는 衛나라가 현자를 등용하지 못하여 현자가 伶官(樂官)으로 벼슬하고 있음을 비판한 시이다. 「부유」와 「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蟋蟀之羽	하루살이의 깃이여
衣裳楚楚	의상처럼 선명하도다
心之憂矣	마음에 걱정이 되니
於我歸處	나에게로 돌아와 거처할지어다
「부유」, 제1장	

모시서에서는 “「부유」는 사치함을 풍자한 시이다. 昭公은 나라가 작고 좁은데도 법을 스스로 지킴이 없고 사치함을 좋아하며 소인을 임용하여 장차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魯나라의 소공이 나라의 형편을 모르고 사치함을 비판한 시이다.

子之湯兮 그대의 질탕하게 높이여
 宛丘之上 兮宛丘의 위에서 하도다
 洵有情兮 진실로 연정은 있으나
 而無望兮 바라볼 것이 없도다
 「완구」, 제1장

모시서에서 “「宛丘」는 幽公을 풍자한 시이니, 음란하고 술에 빠져 혼란하며 游蕩하여 법도가 없어서였다.”라고 하였고, 주희는 “國人들이 이 사람이 항상 宛丘의 위에서 遊蕩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 일을 서술하여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나라에서 춤이 유행한 까닭을 주희는 “周武王 때에 帝舜의 후손인 有虞 闕父가 周나라 陶正이 되니, 무왕은 그가 器用을 잘 만들고, 또 神明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元女인 太姬를 그의 아들인 滿에게 시집보내고, 陳나라에 봉해서 宛丘의 곁에 도읍하여 黃帝·帝堯의 후손과 함께 三恪이 되게 하였으니, 이가 胡公이다. 太姬婦人은 존귀하여 巫覡과 가무의 일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이에 물들었다. 지금의 陳州가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하였다.

3) 가혹한 착취

공자는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苛政猛於虎]”고 하였다. 지배계층의 평민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고금과 동서를 막론하고 없었던 적이 없다. 유종원은 뱀꾼에 관한 「捕蛇者說」이라는 산문에서 세금의 공포를 핏진하게 서술하였다. 『시경』에도 이러한 세금에 대한 두려움과 불만을 읊은 시가 있다. 그 대표적인 시로는 「碩鼠」, 「伐檀」, 「隰有萋楚」 등이 있다. 「석서」에는 “큰 쥐야, 큰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말지어다. 삼년 동안 너를 익숙히 하였는데도 나를 즐거이 돌봐주지 않는다 [碩鼠

碩鼠, 無食我黍. 三歲貫女, 莫我肯顧.] ”라는 시구가 나오는데, 이 시에 대하여 「모시서」에서는 “碩鼠」는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풍자한 시이다. 國人들이 그 군주가 과중하게 세금을 거두어 백성들을 蠶食하여 그 정사를 닦지 않고 탐욕스러우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큰 쥐와 같음을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희는 “백성이 탐욕스럽고 잔혹한 정사에 곤궁하였다. 그러므로 큰 쥐가 자기를 해친다고 가탁하여 말하고 떠나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시는 백성이 무거운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살고 싶은 심정을 읊은 시이다. 비슷한 뜻을 담은 「습유장초」와 「벌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隰有萋楚	진필에 장초가 있는데
猗儺其枝	부드러운 그 가지이도다
天之沃沃	예쁜 것이 반들반들한데
樂子之無知	그대의 아는 것 없음이 부럽노라
「습유장초」, 제1장	

이 시의 제2장에 “예쁜 것이 반들반들하니 그대의 집이 없음이 부럽노라. [天之沃沃, 樂子之無家.] ”와 제3장에 “예쁜 것이 반들반들하니 그대의 집이 없음이 부럽노라. [天之沃沃, 樂子之無室] ”라는 시구가 나온다. 이 시에 대하여 주희는 “정사가 번거롭고 부역이 무거우니,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초목이 무지하여 근심이 없음만 못함을 탄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坎坎伐檀兮	어차어차 박달나무를 베어내어
寘之河之干兮	하수의 물가에 놓아두니
河水清且漣漪	하수가 맑고 또 잔물결이 일도다
不稼不穡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면

胡取禾三百廛兮	어떻게 벼 삼백전을 취할 것이며
不狩不獵	겨울 사냥도 않고 밤 사냥도 아니하면
胡瞻爾庭有縣緡兮	어떻게 너의 뜰에 매달린 담비를 보리오
彼君子兮	저 군자여
不素餐兮	공밥을 먹지 아니하도다

「별단」, 제1장

「모시서」에서 “「伐檀」은 탐욕스러움을 풍자한 시이다. 지위에 있는 자가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공이 없으면서 녹을 받아 군자가 나아가 벼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두 시를 통하여 피통치자가 가혹한 부역과 무위도식자의 호위호식에 대하여 얼마나 고통 받으며 괴로워했는가를 알 수 있다.

4) 行役과 征伐로 인한 가족붕괴

『시경』에는 변방의 수자리와 정벌을 위하여 끌려간 내용을 읊은 시가 적지 않은데 이를 行役詩라고도 한다. 행역이 빈번하면 이로 인하여 가정생활이 파괴하고 부모와 형제간의 효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읊은 대표적 시로는 「擊鼓」, 「君子于役」, 「四牡」, 「蓼莪」가 있다.

擊鼓其鏜	둥둥 북을 치자
踴躍用兵	뛰면서 무기를 쓰도다
土國城漕	도성에서 토공을 하고 조읍에서 성을 쌓는데
我獨南行	나만 홀로 남으로 가도다

「격고」, 제1장

「모시서」에서 “「擊鼓」는 州吁를 원망한 시이다. 衛나라 州吁가 用兵하여 포악하고 난을 일으켜 公孫文仲을 장수로 삼아 陳나라와 宋나라를

和平하게 하니, 國人들이 용맹하기만 하고 無禮함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희는 “衛나라 사람으로서 종군하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하는 바를 말하였다.”라고 하였다.

君子于役	임께서 행역 나가심이어
不知其期	그 돌아올 시기를 모르겠으니
曷至哉	어디에 이르셨을까
鷄棲于埘	닭은 헛대에 깃들며
日之夕矣	해가 지기에
羊牛下來	양과 소가 내려오는데
君子于役	임께서 행역 나가심이어
如之何勿思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군자우역」, 제1장

「모시서」에서는 “平王을 풍자한 시이다. 군자가 부역을 가서 돌아올 기한이 없으니, 대부가 그 危難을 생각하여 풍자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희는 “대부가 오랫동안 밖에 부역을 가 있으니, 그 부인이 그리워하여 읊었다.”라고 하였는데, 긴 행역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이 망가졌음을 읊었다.

四牡騑騑	네 쫓는 말이 쉬지 않고 가는데
嘽嘽駱馬	많고 많은 가리온 말이로다
豈不懷歸	어찌 돌아감을 생각하지 않으리오마는
王事靡盬	왕의 일을 견고히 아니할 수 없기에
不遑啓處	끓어앉으며 거처할 겨를이 없노라

「사모」, 제2장

제3장에는 “왕의 일을 견고히 아니할 수 없기에 아버지를 봉양할 겨를이 없노라. [王事靡盬, 不遑將父]”, 제4장에는 “왕의 일을 견고히 아니

할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봉양할 겨를이 없노라. [王事靡盬 不遑將母]”, 제5장에는 “어찌 돌아감을 생각하지 아니하리오, 이 때문에 노래를 지어 어머니 봉양을 와서 고하노라. [豈不懷歸 是用作歌 將母來諗]”라는 시구가 있다. 이 시에 대하여 「모시서」에서는 “「四牡」는 使臣이 음을 위로한 시이니, 공이 있음에 인정을 받으면 기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시의 내용에서 사신으로 가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신세와 국가를 위한 충성을 동시에 읊었다.

南山律律	남산이 높고 크거늘
飄風弗弗	표풍이 빠르고 빠르도다
民莫不穀	남들은 좋지 않은 이가 없거늘
我獨不卒	나만 홀로 봉양을 끝까지 못하노라

「육아」, 제6장

「모시서」에서는 “「寥哉」는 幽王을 풍자한 시이니, 인민들이 勞苦하여 효자가 봉양을 끝마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시 본문에 나오는 ‘卒’자의 의미에 대하여 주희는 “마친다는 뜻이니 봉양을 끝마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不卒’은 부모의 봉양을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何草不玄	어느 풀인들 검어지지 않으며
何人不矜	어느 사람인들 홀아비가 되지 않으리오
哀我征夫	불쌍한 우리 출정한 사람은
獨爲匪民	홀로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하초불황」, 제2장

「모시서」와 주희 모두 정벌의 고통을 읊었다고 했는데, 주희는 “周나라 왕실이 장차 망하려 함에 征役이 쉬지 아니하니, 부역 가는 자들이

이를 괴로워하였다. 그러므로 이 詩를 지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5) 의식주에 대한 불안

예나 지금이나 평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의식주의 안정이다. 평민들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요순의 이상 정치는 「擊壤歌」로 상징되는데 “해가 뜨면 나아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쉰다.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의식주의 걱정이 없는 무사안일을 읊은 것이다. 관중은 『管子』 「牧民」에서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 [倉廩實而知禮節]”라고 하였고, 맹자는 “恒産이 없으면恒心도 없다”라고 하여 恒産을 통한 의식주의 안정을 강조하였다. 시경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의식주를 매우 중시하여 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있을 때엔 비판을 하였다. 이 내용과 관련한 시구가 적지 않은데 그 대표적인 시로는 「葛覃」, 「緇衣」, 「羔裘」, 「無衣」, 「蓼之華」, 「何草不黃」, 「斯干」 등이 있다. 「갈담」, 「치의」, 「고구」는 옷에 대하여 읊은 시인데 「고구」에는 “검은 양 갖 옷이 윤택하니 진실로 털이 순하고 또 아름답도다. [羔裘如濡, 洵直且侯]”라는 시구가 있다. 「초지화」와 「하조불황」은 먹는 것에 대하여 읊은 것이고 「사간」은 집에 대하여 읊은 시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群羊墳首	암양이 머리가 크며
三星在罍	삼성이 통발에 비치고 있도다
人可以食	사람이 먹을 수는 있을지언정
鮮可以飽	배부른 이가 적도다

「초지화」, 제3장

於我乎 나에게
 每食四簋 매양 음식을 먹을 적에 네 보배이더니
 今也每食不飽 지금은 매양 음식을 먹을 적마다 배부르지 않구나
 于嗟乎 슬프구나
 不承權輿 처음을 계승하지 못하는구나
 「권여」, 제2장

「모시서」에서는 “「菫之華」는 대부가 세상을 걱정한 시이다. 幽王 때에 西戎과 東夷가 중국을 침범하여 병란이 함께 일어나고 기근이 겹치니, 군자가 周나라 왕실이 장차 망하게 됨을 걱정하고 자신이 이러한 때를 만난 것을 서글퍼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를 지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랑캐와의 전쟁 속에서 기근에 시달려 굶주리는 고통을 읊은 것이다.

「권여」는 「모시서」에서 “「權輿」는 康公을 풍자한 시이니, 선군의 옛 신하와 현자를 잊어서 사람들이 처음만 있고 끝이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버림받은 신하가 음식의 부족함을 불평한 시이다.

似續妣祖 조비와 조고를 이어서
 築室百堵 집 백도를 쌓으니
 西南其戶 그 창문을 서쪽으로 내고 남쪽으로 내었으니
 爰居爰處 이에 거하고 이에 처하며
 爰笑爰語 이에 웃고 이에 말하리로다
 「사간」, 제2장

「모시서」와 주희 모두 집을 짓고 사는 즐거움을 말했다고 했는데, 주희는 “이 시는 집을 지어 완성함에 잔치하고 술을 마셔 낙성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일을 노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6) 亂局과 亡國의 恨

『시경』「대아」의 「蕩」에는 “하늘이 못 백성을 내시니 그 명이 믿을 수 없는 것은 처음에는 선하지 않은 이가 없으나 끝을 잘 맺는 자가 드물기 때문이니라.”라는 시구가 있는데, 이는 건국 초기엔 군주가 백성을 잘 다스리지 않음이 없지만 끝내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져 그 끝이 좋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黍離之歎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王風의 「黍離」 시의 내용을 요약하여 망국의 한을 표현한 성어이다. 그 대표적인 시로 「黍離」, 「式微」, 「下泉」 등이 있다.

彼黍離離	저 기장은 늘어지고 늘어졌는데
彼稷之實	저 피는 열매가 영글었도다
行邁靡靡	걸어감이 더디고 더디어
中心如噎	속마음이 목맨 듯하네
知我者	나를 아는 자는
謂我心憂	나더러 마음에 근심한다 하거늘
不知我者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謂我何求	나더러 무엇을 구하는고 하나니
悠悠蒼天	아득하고 아득한 푸른 하늘아
此何人哉	이렇게 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서리」, 제3장

「모시서」에서는 “「黍離」는 宗周의 멸망을 민망히 여긴 것이다.”라고 하고, 주희는 “周나라가 이미 東遷하자, 대부들이 부역을 갔다가 宗周, (鎬京)에 이르러 옛 종묘와 宮室을 지나보니, 모두 기장 밭이 되어 있었다. 이에 周室의 顛覆함을 민망히 여겨 彷徨하여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서주가 망하여 그 수도인 호경이 기장과 피가 무성해진 광경을 보고 망국의 슬픔을 읊은 시로 보았다.

式微式微 쇠미하고 쇠미한데
 胡不歸 어찌 귀국하지 아니하십니까
 微君之故 임금님의 연고가 아니라면
 胡爲乎中露 무엇 때문에 이슬 속에 있겠습니까
 「식미」, 제1장

「모시서」에는 “「式微」는 黎나라 임금이 衛나라에 붙여 있으니, 그 신하들이 돌아갈 것을 권한 시이다.”라고 하고, 주희는 “舊說에 黎侯가 나라를 잃고 衛나라에 寓居하니, 그 신하들이 권면하였다.”라고 했는데, 망한 여나라의 신하가 망국의 슬픔을 읊은 시이다.

冽彼下泉 차가운 저 흘러내리는 샘물이어
 浸彼苞稂 저 더부룩한 가라지를 적시는구나
 愴我寤嘆 후유, 내가 잠에서 깨어나 탄식하면서
 念彼周京 저 주나라의 서울을 생각하노라
 「하천」, 제1장

「모시서」에서는 “「下泉」은 나라가 다스려짐을 생각한 시이다. 曹나라 사람들은 共人이 아래 백성들을 침해하여 살 곳을 얻지 못함을 미워하여, 근심해서 明王과 賢伯(어진 방백)을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희는 “王室이 陵夷하여 弱小國이 困弊를 당하여 읊은 시이다.”라고 했는데, 조나라가 작은 나라로 국정이 혼란하자 그 백성이 이와 같은 상황을 비판한 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치자에 대한 비판은 신하의 군주에 대한 비판과 평민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으로 대별된다. 신하는 군주와 평민을 제외한 제후와 관료이고 평민은 벼슬을 하지 않은 보통의 백성이다. 신하의 비판은 주로 군주의 인품과 군주의 정치행위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고, 평민의 비판은 주로 지배계층의 통치행위로 인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그 통치행위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다. 평민의 비판은 자신의 삶과 직결된 내용으로 지배계층에게 당한 가혹한 착취와, 행역으로 인한 가족붕괴, 의식주의 불안인데 평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시로 자신들의 처지를 읊어 통치자에 대해 비판하였다.

5. 통치에 대한 대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통치자들은 통치자와 그들의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하여 비판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치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상응하는 정치적 대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응은 소극적인 경우와 적극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극적 대응

『시경』에는 ‘天’에 대하여 읊은 시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시를 통하여 시경시대 사람들의 하늘에 대한 관념을 알 수 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사람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여겼는데 이는 ‘天人相關論’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들고 보아서 덕이 있는 사람은 보호하여 복을 주고 악한 사람은 처벌한다는 보답과 응징의 하늘의 주재능력을 믿었다. 이로 인하여 극도로 억울하거나 답답할 때는 하늘에 호소하여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며 감정을 달랬다. 雅의 「巷伯」 제5장의 “푸른 하늘아 푸른 하늘아, 저 교만한 사람을 살펴보고, 이 수고로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蒼天蒼天, 視彼驕人, 矜此勞人]”라는 시구는 자신이 모함을 받은 억울한 심정을 하늘에 호소하여 자신을 달랜 시이다. 雅의

「天保」 제1장의 “하늘이 임을 보장함이 또한 매우 견고하도다 [天保定爾, 亦孔之固]”라는 시구는 덕이 있는 사람을 하늘이 보호해준다는 내용을 읊은 시로 하늘의 보답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邶風의 「北門」 제1장의 “그만두자꾸나. 하늘이 실로 이렇게 만드셨으니 말한들 무엇하리오. [已焉哉, 天實爲之, 謂之何哉]”라는 시구는 자신의 현실적 어려움과 가난을 하늘에 돌려 어쩔 수 없이 수용하여 인내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雅의 「雨無正」 제1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浩浩皇天	광대한 황천이
不駿其德	그 은덕을 크게 하지 아니하사
降喪饑饉	기근을 내려 나라를 망하게 해서
斬伐四國	사방의 나라를 참벌하시나니
昊天疾威	호천이 포학한지라
弗慮弗圖	사려하지 않고 도모하지 않도다
舍彼有罪	저 죄 있는 이는
既伏其辜	이미 그 죄를 받았으니 그만이거니와
若此無罪	이 죄 없는 이는
淪胥以鋪	죽음에 빠져 서로 두루 미쳐서야 되겠는가

「우무정」, 제1장

이 시에 대하여 「모시서」에서는 “대부가 幽王을 풍자한 시이다. 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 政令이 비처럼 많이 내려왔으나 올바른 정사는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시의 내용은 기근과 망국은 모두 하늘이 주재한 것인데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이 모두 구별 없이 재앙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하늘과 인간의 상관성을 전제로 하늘의 무심함을 원망한 것이다. 이러한 관념은 점차적으로 하늘의 주재 능력을 회의하는 쪽으로 확대되었는데, 「十月之交」 제7장의 “아래 백성의 재앙은 하늘로부터 내

려오는 것이 아니라. [下民之蘄, 非降自天] ”와 제8장의 “나만이 홀로 감히 쉬지 못하니 천명이 공평하지 못해서이다. [我獨不敢休, 天命不徹] ”라는 시구를 통하여 이러한 생각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경시대 백성들은 하늘을 믿으면서도 간혹 의심을 하는 상호 모순적 양상을 보이며 자신의 처지에 따라 하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심정을 하늘에 호소하여 위정자의 통치행위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을 하였다.

2) 적극적 대응

최고통치자인 주나라 천자에 대하여 충성과 더불어 불만을 표출하고 정권에 도전을 감행한 것은 사실 제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그 제후에 대한 도전은 제후들의 대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말기에는 천자의 정치적 위엄을 제후들이 존중하여 국가의 질서가 그런대로 유지되었지만, 전국시대에 들어가면 주나라 천자는 명목상 존재하였을 뿐 그 권위가 추락하여 더 이상 통치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서주에서 동주로 바뀔 때는 申侯가 오랑개 犬戎의 세력을 끌어 들여 동주의 첫 번째 왕인 平王을 옹립하여 세웠던 사실에서 주나라의 정치적 위상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자는 禮를 주장하여 사회질서를 회복하여 요순시대를 복원하고자 하였고, 맹자는 왕도정치를 주장하면서도 왕의 정치능력에 따라 그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 백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 따라 왕의 教民과 養民 능력에 따라 왕을 교체할 수도 있다는 혁명설을 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유가와 달리 법가에서는 부국강병과 법을 내세워 힘 있는 제후(군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는 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평민계층의 피통치자들은 감히 정권에 대한 도

전은 생각하지 못하고 통치자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자신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國風의 「北風」, 「碩鼠」, 小雅의 「白駒」, 「四月」 등의 시편에서는 그 대응 방법으로 탈출과 잠적의식이 보인다. 「백구」에는 “그대 한가롭게 늙을 삼가하며 그대 은둔하려는 생각을 거들지어다. [慎爾優遊, 勉爾遁思.]”라는 시구가 나오는데, 주희는 “이 시를 지은 자는 현자는 떠나는데 만류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모시서」에서는 “「白駒」는 대부가 宣王을 풍자한 시이다.”라고 하였다. 이 시는 현자가 주나라 선왕 때 혼란한 정국을 피하여 은둔하고자 하는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四月」 제2장에 “심란하고 근심스러워 병이 드니 어디로 가서 돌아갈까 [亂離瘼矣, 爰其適歸]”와 제5장에 “보라매도 아니요 매도 아니거니 나래로 날아 하늘에 이를까. 전어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거니 못에 잠겨 도망할까. [匪鶉匪鳶, 翰飛戾天. 匪鱸匪鮪, 潛逃于淵]”라는 시구가 보이는데, 「모시서」에서는 “「사월」은 대부가 幽王을 풍자한 시이다. 지위에 있는 자가 탐욕스럽고 잔학한 짓을 하여 下國이 화를 만나니, 원망과 혼란이 함께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고, 주희 또한 “이는 조나라가 난국을 만나 스스로 상심한 시이다.”라고 하였다. 나라가 혼란하자 새처럼 하늘로 날아가고 물고기처럼 깊은 연못에 숨고 싶은 심정을 읊은 것이다.

「考槃」, 「十畝之間」, 「衡門」에서는 은거와 은둔의 즐거움을 읊었는데 「고반」은 깊은 산골짜기에 사는 즐거움을 읊었고, 「십묘지간」은 십 묘의 작은 땅을 일구며 숨어사는 즐거움을 노래하였으며, 「형문」은 외딴곳 작은 집에 숨어사는 즐거움을 읊었다. 그 대표적인 시로 「北風」과 「碩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北風其凉 북풍이 쌀쌀하며

雨雪其雱	진눈깨비가 펄펄 내리도다
惠而好我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攜手同行	손잡고 함께 떠나가리라
其虛其邪	그 꾸물대고 그 느리게 할 수 있겠는가
既亟只且	이미 빨리 해야 하겠도다

「북풍」, 제1장

「모시서」에서는 “北風은 사나움을 풍자한 시이다. 衛나라 사람들이 모두 위엄과 사나운 짓을 하니, 백성들이 친하지 못하여 서로 손을 잡고 떠나가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고, 주희는 “北風雨雪을 말하여 국가의 危亂이 장차 이르러 기상이 서글프고 참혹함을 비유하였다. 그러므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과 더불어 떠나가서 난리를 피하고자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두 설을 참고하면 통치자의 잘못으로 나라가 위험하고 혼란하자 빨리 도피하고 싶은 심정을 읊은 시라고 할 수 있다.

碩鼠碩鼠	큰 쥐야, 큰 쥐야
無食我黍	내 기장을 먹지 말지어다
三歲貫女	삼년 동안 너를 익숙히 하였는데도
莫我肯顧	나를 즐거이 돌봐주지 않을진댄
逝將去女	떠나가 장차 너를 버리고
適彼樂土	저 즐거운 땅으로 가리라
樂土樂土	즐거운 땅이여, 즐거운 땅이여
爰得我所	이에 내 살 곳을 얻으리로다

「석서」, 제1장

제2장에 “떠나가 장차 너를 버리고 저 즐거운 나라로 가리라. [逝將去女, 適彼樂國]”와 제3장에 “떠나가 장차 너를 버리고 저 즐거운 들녘으로 가리라. [逝將去女 適彼樂郊]”라는 시구가 나온다. 이 시는 탐관오

리의 가혹한 착취를 피하여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빨리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심정을 읊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시경시대의 평민들이 통치자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방법은 하늘이나 연못으로 깊숙이 숨어 피신하는 방법, 다른 곳으로 떠나는 방법, 은둔과 은거의 방법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避人과 避世로 나뉘 볼 수 있다. 높은 하늘과 깊은 연못에 숨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읊은 것이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방법은 가깝게는 본국의 교외와 다른 나라로 떠나는 방법이 있다. 은둔과 은거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숨고 떠나는 것은 피신이고 은둔과 은거는 피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시경시대 평민들은 아직 강렬한 저항의식을 가지고 정권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권에 대한 도전은 진나라 말기의 진승과 오광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6. 맺는말

『시경』에 나타난 정치의식은 비판과 찬미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어 있고, 통치자의 정치적 요구와 피통치자의 정치적 바람이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통치자와 그 통치행위에 대하여 피통치자의 비판과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신하와 평민의 정치의식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항목을 나눠 군주의 혼용, 통치자의 향락, 가혹한 착취, 정벌과 행역으로 인한 가족붕괴, 의식주에 대한 불안, 망국의 한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군주의 혼용, 통치자의 향

락, 망국의 한은 통치자와 그 통치행위에 대한 공적인 비판이고 가혹한 착취, 정벌과 행역으로 인한 가족붕괴, 의식주에 대한 불안은 통치자의 통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사적인 비판이다.

또한 피통치자의 정치적 대응은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으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소극적 대응은 하늘을 믿으며 타고난 운명과 신분에 순응하여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고, 나쁜 통치자라도 참고 의지하여 삶을 유지하는 의타적 자세를 취하고, 현실에 안주하여 현실을 타파할 의지가 부족함에서 기인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나라처럼 종법제와 봉건제에 기초한 신분계급사회에서 계층상 하위에 속한 평민이 정치의 굴레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할 만한 적극적 대응이 있었으니 원망을 넘어 선 탈출과 은거이다. 이러한 대응은 정치와 사회적 한계 속에서 평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이후 저항-봉기-혁명의 정치적 도전을 감행하는데 기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통치자가 백성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전통을 강조하여 民本을 얘기한다. 그러나 적어도 시경 시대에는 민본의 의미를 善意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백성을 존중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민본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통치전략으로써 민본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민의 정치적 자각에 의하여 평민에 의하여 평민을 위한 민본이 주장된 것은 아니다. 평민의 정치의식이 원망-비판-탈출-은거-저항-봉기-혁명의 도식으로 진전되었다고 가정할 때, 시경시대에는 탈출과 은거의 단계까지만 존재하여 평민이 스스로 자신들이 국가의 근본임을 자각하는 정치의식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후 단계는 전국시대의 제후들의 주나라 천자에 대한 도전과

진시황의 통일, 그리고 진나라 말기의 진승과 오광의 봉기 및 유방의 한나라 건국으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권에 대한 도전도 전국시대의 제후는 지배계급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피지배 하층계층의 봉기와 건국은 진승과 유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방이 평민으로서 한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近因은 진승과 오광이고 遠因은 시경시대의 평민들에 의하여 잉태된 비판적 정치의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朱熹 著, 朱傑人 外 2名 主編,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2000.
-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 傳統文化研究會, 2006.
- 金赫濟 編纂, 《詩傳》, 明文堂, 2000.
- 孔子文化大全編輯部編輯, 『毛詩』, 山東友誼書社, 1990.
- 屈萬里 著, 《詩經詮釋》, 聯經出版社, 1983.
- 실시학사 경학연구회, 《역주 시경강의》 1·2·3, 도서출판 사암, 2008.
- 金時俊 著, 『毛詩研究』, 瑞麟文化社, 1981.
- 傅樂成 著, 辛勝夏 譯, 『中國通史』, 우중사, 1982.
- 洪湛俊, 《詩經學史》 上·下冊, 中華書局, 2002.
- 于新 著, 《詩經研究概論》, 中國社會出版社, 2010.
- 戴維 著, 《詩經研究史》, 湖南教育出版社, 2001.
- 朱孟庭 著, 《詩經的多元闡釋》, 文津出版社, 2012.
- 《檀作文 著, 朱熹詩經學研究》, 學苑出版社, 2003.
- 鄒其昌 著, 《朱熹詩經詮釋學美學研究》, 商務印書館, 2004.
- 袁行需 외 2인, 《中國詩學通論》, 安徽教育出版社, 1994.
- 何海燕 著, 《清代詩經學研究》, 人民出版社, 2011.
- 郭全芝 著, 《清代詩經新疏研究》, 安徽大學出版社, 2010.

The Study on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the Common People Appeared in Shing Jing

Park, Sun-chol*

'Shing Jing' is China's first anthology of verse, which has substantial and various content. In particular, the '15 national style', a gathering of popular folk songs, contains the voice of the common people at that time which enables us to see the people's political and social concepts and living conditions. Through these poems, we can see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nd responses of the common people against the ruling class. The common people criticized and responded to the ruler's governance if his ruling behaviors greatly influence them or are directly related to them.

Its contents include the political criticism of the common people toward the un wisdom of the monarch, the dissipation of the ruler, the cruel exploitation, the collapse of the family due to the subjugations and the wanderings, the uneasiness about food, clothing, housing and transportation, and the mourning of the loss of the country. The fatuity and the decadence of the ruler and the sorrow of losing country are the public criticism against the ruler and his ruling behaviors, while the family collapse caused by the war, the severe extortion and want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transportation are the personal criticism against the harms caused by the ruler.

The political correspondence of the ruled can be divided into negative correspondence and positive correspondence. Negative correspondence is derived from the submission toward the laws of nature, the conforming attitudes to fate and rank, and the complacency in given conditions. Even in

*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E-mail: unshan@hanmail.net

the face of the fatuous rulers, the common people insist on enduring, maintaining the status quo, depending on the current system and lacking the will to criticize reality. This is because in the status-based hierarchical society relying on the patriarchal system and feudalism (like the Zhou state), it is not easy for the low-class civilians to actively respond to the political constraints. Nevertheless, there were some positive responses: escaping and living in seclusion. These kinds of responses are the manifestation of the political will of civilians in the limited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uture political challenge of resistance, uprising and even revolution.

Key Words

'Shing Jing', '15 national style', the common people, the political consciousness, escaping and living in seclusion

논문접수일: 2020.2.13, 심사완료일: 2020.2.19, 게재확정일: 2020.2.21
--